

# 몸짓과 침묵으로 발견한 진실과 자유

《말하지 않기에 더 느낄 수 있습니다》 펴낸 유진규씨

〈밤의 기행〉〈동물구경가자〉 등을 공연했던 마임배우 1세대 유진규씨(50)가 《말하지 않기에 더 느낄 수 있습니다》(중앙M&B)를 펴냈다. 30년 가까이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몸짓 하나만으로 자신과 세상을 표현해왔다. 비록 문자긴 하지만, 처음으로 그 자신의 삶과 생각을 말로 표현했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이 책의 의미는 남다르다. 몸짓 대신 말을 표현수단으로 삼긴 했지만, 이 책은 말 아닌 것들과 그 말 아닌 것들로 들여다본 유진규식 세상살이로 채워져 있다. 몸짓과 침묵, 그리고 그것들로 이뤄진 마임 같은 것들 말이다.

“세계 마임은, 분명 있지만 우리 의식 속에 더 이상 있지 않은 다수의 존재들을 만나는 일이죠. 또한 의식 속에 부재하는 것들과 만나 사물을 새롭게 인식하고 본질을 깨우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 우리네 삶에 어떤 식으로 다가서고 있는지 돌아켜보는 일이에요.”

그는 “들려지는 말”이 아닌 “잉태되는 순간 이미 지니고 있던 몸의 언어”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 그가 말보다 몸짓과 침묵을 옹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는 몸짓과 침묵 속에서 거짓 없는 진실과 자유를 발견한다.

“세계 마임은, 분명 있지만 우리 의식 속에 더 이상 있지 않은 다수의 존재들을 만나는 일이죠. 또한 의식 속에 부재하는 것들과 만나 사물을 새롭게 인식하고 본질을 깨우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 우리네 삶에 어떤 식으로 다가서고 있는지 돌아켜보는 일이에요.”

그는 이 책에서 말로 씌어진 동화, 일테면 〈콩쥐 팥쥐〉〈백설공주〉 같은 것에 판죽을 걸어보기도 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동화에 거저된 음모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는 것이다. 또 “내 속도는 내가 정한다”고 외치기도 한다. 세상과 사물을 대하다 보면 그만큼 애정과 열정이 필요한데, 이 세상은 그가 애정과 열정을 주기에는 너무 많은 사물들로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가 마임을 몸으로 느낀 것은 20대 초반이었다. 그는 본래 수의학과 학생이었다. 서울 태생으로 당시 창경원 근처에 살았던 그가 동물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선택한 길이었다. 그러나 대학은 생각보다 ‘억압적’ 이었고 그래서 찾은 것이 연극이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극단에 뛰어들었는데, 그곳이 바로 실험극을 주로 하던 극단 ‘에저또’ 였다. 거기서 몸짓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히 마임에 눈을 떴다. 그러나 막상 마임을 선택하는 순간에는 고민이 많았다. 그것은 아무도 가지



유진규씨

중앙M&B/A5신/246면/8500원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때 떠오른 것이 《장자》였다. ‘길이란 무엇인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길은 사람이 다님으로써 생긴 것이다. 원래 길은 없었다.’

그렇게 마임의 길에 들어서고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스스로 작품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1981년 결혼 이후 춘천에 내려가 1987년까지 그는 마임을 떠나 있었다. 그러다 문득 친구가 찾아와서 “우리나라 마임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네가 마임 1세대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한 말을 듣고 다시 마임에 뛰어들었다. 당시 사람들을 모아서 마임 축제를 벌인 것이 이제는 춘천국제마임축제로 발돋움했고 올해로 14회째를 맞는다.

마임을 되살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는 동안 그는 뇌종양을 앓기도 했다. 죽을 결심을 하고 산에 들어가 오직 명상만 하며 지냈더니 종양이 말끔히 없어졌다. 모든 몸의 병이 마음에서 온다는 걸 깨달은 것도 그때다. 마임도 30년 하면 도가 통하는 모양이다. 30년 자신만의 몸짓으로 세상을 표현해왔던 그는 이제 한국적 몸짓을 이야기한다.

“한국적 몸짓이란 유럽의 마임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몸짓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된 민족성과 어울려 나오는 이 시대 한국인의 몸짓 말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그가 말하는 한국적 몸짓의 바탕에 어떤 것들이 채워질지 차분히 보여준다. —김장근기자

## 낭만적 사랑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풍경

《꿈꾸는 마리오네뜨》 퍼낸 권지예씨

무명이나 다름없는 신예작가로 2002년 이상문학상을 거머쥐며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는 작가 권지예씨(42). 그가 최근 등단작 <꿈꾸는 마리오네뜨>를 비롯해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문예지에 발표한 중·단편소설 여덟편을 모아 첫 소설집 《꿈꾸는 마리오네뜨》(창작과비평사)를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여성들이 낭만적인 사랑이 부서진 시대를 어떻게 견디는지, 또 쳇바퀴 돌듯 반복하는 일상에서 어떻게 자신을 찾으려 몸부림치는지 진지하게 들여다본다. 잊갈린 부부관계, 현대인의 불임성, 불륜 등을 소재로 삼아 소통불능의 관계 그 너머를 응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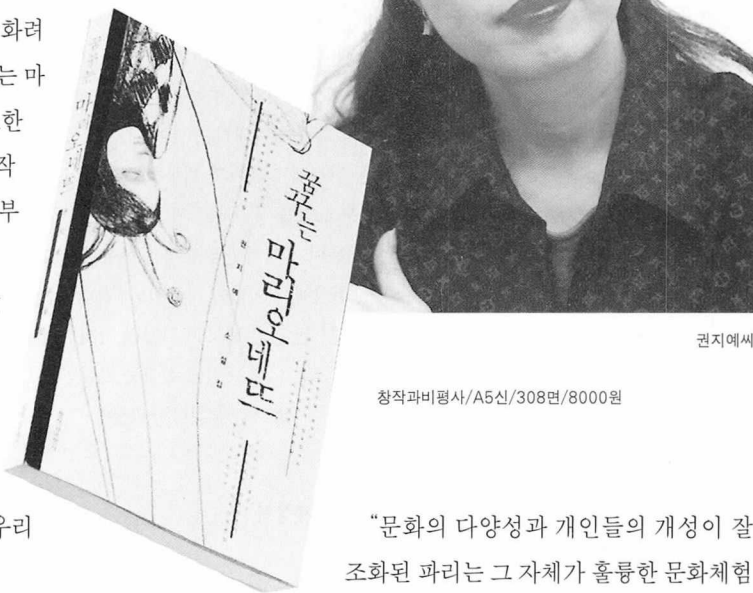
“여성에게 과연 사랑이 무엇인가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탈의 과정보다 그 후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을 추스르는가에 초점을 맞췄죠. 스스로 관습에 얽매인 관계를 깨뜨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표제작 <꿈꾸는 마리오네뜨>는 파리에서 유학중인 남편과 서울에서 임시교사와 과외교사 일을 전전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아내의 이야기. 그들의 모습은 “단지 아내와 남편이라는 한 줄에 매달린 마리오네뜨 인형의 관계”처럼 위태롭다.

“여성에게 과연 사랑이 무엇인가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탈의 과정보다 그 후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을 추스르는가에 초점을 맞췄죠. 스스로 관습에 얽매인 관계를 깨뜨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는 각각 지구 반대편에서 대롱거리지만 “줄이 끊어지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관계만 남은” 부부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런가 하면 <고요한 나날>과 <나무물고기>의 주인공들은 느닷없이 찾아온 생의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불행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가”고, “무거운 중력만큼 또 그 만큼의 부력이 삶에 항상 내장되어 있는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렇듯 그의 소설 속 주인공들은 삶의 모순을 직시하지만 호들갑스럽게 맞서지 않는다. 오히려 허무와 쓸쓸함을 껴안으며 사랑의 환상을 딛고 일어서려 힘겹고도 간절한 몸짓을 보낸다.

그가 본격적인 문학수업을 시작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시절엔 글 잘 쓰는 동생이 부러워 무작정 장편소설을 쓰겠다고 대학노트 한권을 채우기도 했다. 대학시절에는 수차례 문학상을 휩쓸 만큼 문제를 날렸다. 하지만 그 후로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했다. 그러다 남편을 따라 파리 유학길에 올랐고 일상에 갇혀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던 1995년 무렵, 다시 주술에 이끌리듯 마음을 다잡고 소설을 썼다.



권지예씨

창작과비평사/A5신/308면/8000원

“문화의 다양성과 개인들의 개성이 잘 조화된 파리는 그 자체가 훌륭한 문화체험장이었죠. 투우장의 환호하는 관중들 속에서, 노트르담 성당 광장에서 차력사의 슬픈 곡예를 보다가도 문득문득 키보드를 두드리고 싶어 미친 듯 집으로 달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서일까. 그의 소설에선 조금은 낯선 프랑스 향기가 짙게 배어난다. 하지만 삶의 속살을 들춰내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포착된, 껍데기만 남은 부부관계 속에서 방황하는 주인공들이 서 있는 풍경은 황량하다. 그 쓸쓸한 삶의 유한성을 뛰어넘으려 그가 기대는 것은 예술적 감성이다. 그래서 결혼의 환상이 처참히 깨져버린 자리에서 주인공들은 붓을 들기도 한다. 그들에게 그림 그리기는 불멸의 영원성에 귀의하는 일이며 삶을 초월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출이다.

그는 현재 성장소설을 구상중이다. 성장소설이 한 작가가 자신의 자의식을 넘어 또다른 세계로 도약하는 디딤돌인 만큼 꼭 쓰고 싶단다. 신학기부터는 동해대 국문과에서 강의도 하게 됐다.

이 책의 들머리에도 썼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동생에게 빛이 많다고 한다. 동생을 통해 멀리듯 문학에 접신했고, 동생의 죽음을 겪으며 문학을 운명처럼 받아들였으니 이 책이 그에겐 해원의 씻김굿인 셈이다. —박옥순기자